

2018년도 표어
『열매를 맺는 교회』
(행 2:47)

NEW
순복음Life
제32호

발행일 : 2018.12.09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혼
들리고 넘어져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달의 간증>

-한예원 청년-

안녕하세요. 밀알 청년회 한예원 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지 간증 요청을 받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특별
히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3학년, 주님께 간
절히 기도했던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
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제겐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엄마께서 '성전 밝기'를 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1월부
터 성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반에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오면 거의 자정이 된 시간에 성전에 올라 기도하곤 했죠. 가깝다고 하
는 것도 머쓱한 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멀리 집에서 오시는 성도님들께 아무것
도 아니겠지만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은 아파서, 공부할
게 많아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다가올수록 제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
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능 전날 도서
관에서 공부하고 수요일예배에 와서 평소와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핸드폰을 켜는 순간 부재중 전화 열 통과 카톡 백 몇 개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은 순간에 이성재 청년에게 전화가 와서 포
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정말이라며 인터넷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 가 봤더니 정말 수능 연기가 검색어 1위더라고
요. 웬지 모르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힘듦과 일주일을 더 버티야 한다는 억울함의 눈물이었나 봅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2학기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걸 잘 알 거예요.

저 역시 다른 친구들이 수시에 합격해서 놀 때,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서 엄마한테 속상함을 털어놓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연기가 너무도 싫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주님께서 조금 더 공부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능 당일, 매 시험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얻었고 다섯 개의 대학에서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었고,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사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성전 밝기를 하면서 일 년 동안 매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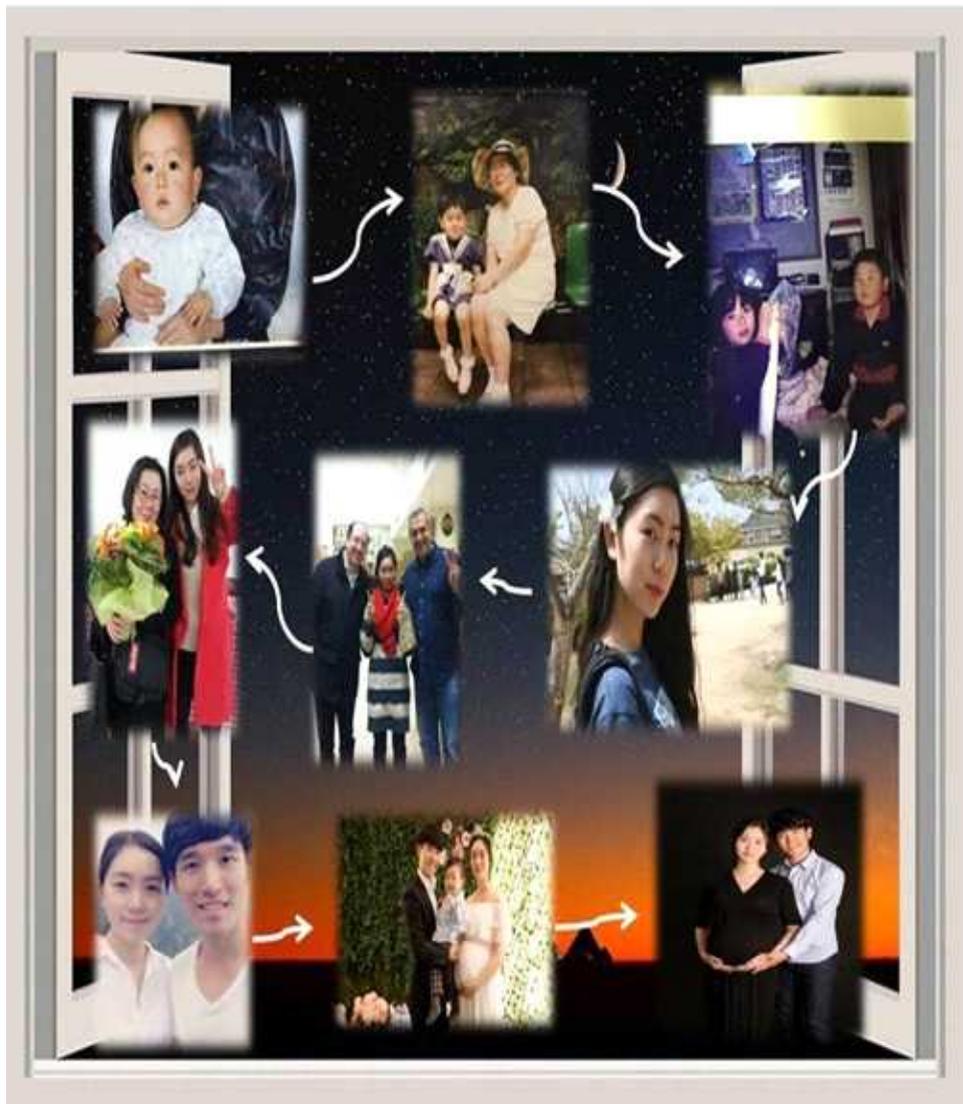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역대상 4장 11절)

제게는 2017년 표어였던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품으며 기도의 위대함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복 주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일 년이 지난 지금,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며 주님께 말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치의 의심 없이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언제나 내 삶을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흔들리고 넘어져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성도안가기

사랑하는 자어 네 영혼이 잠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 하노리 모심리



<성도 알아가기>

-김소현 권찰-

1. 남편 되시는 민이삭 권찰님은 어떤 남편이실까요?

애교와 정이 많고 저의 모든 것을 여전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랑꾼입니다.

2. 권찰님 부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만남부터 결혼까지요.

김귀선 청년을 통해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으면서 꼭 소개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이삭인게 아주 맘에 들었고, 부모님이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안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했죠. 처음 봤는데 착한 인상과 모습, 모든게 좋았어요. 현재도 사랑꾼이지만 결혼 전엔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성을 다해 사랑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신앙생활하고, 너무 좋다보니 결혼을 일찍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일찍 결혼한건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3.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늘 정해져 있는 답인데 꼭 '이름이가 좋아 자기가 좋아' 물어봅니다.

ㅎㅎ 애정 표현 해 달라고 애교 부릴때도 귀엽습니다.ㅎㅎ

4. 이름이의 이 모습은 이름이 아빠랑 똑같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뺨속에 있을 때부터 머리를 긁적이는게 아빠 닮아서 그런가 했는데 즐리면 그렇게 두 남자가 머리를 긁어요. 그리고 이름이가 비염이 심한데 재채기하고 콧물 날 때 보면 아빠랑 똑같더라고요.

5. 이름이 동생이 나왔는데, 이름이 동생의 동생을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저희의 자녀계획은 처음부터 3명이었어요. 저는 딸 두 명에 아들 하나, 민이삭 권찰은 아들 둘에 딸 하나요. 5년 뒤에 딸로 도전 해 보려구요.

6. 권찰님이 요리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해 주는 몸보신 요리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요리는 정말 못합니다. 그냥 먹을 수 있게 조리만 해줍니다.

민이삭 권찰은 닭과 계란요리면 입이 귀에 걸리구요. 이름이는 미역국 이랑 생선만 있으면 밥 잘 먹습니다.

7. 나의 나 된 모습이 부끄러울 때는 언제였어요?

매 순간인 것 같아요. 늘 부끄럽습니다. 미고사축을 재갈 물며 살아야 해요. 최근엔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부끄럽습니다.

8.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고 달라진 권찰님의 내면 그리고 외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면적인건 마음이 넓어졌어요. 남편한테는 참아주지 못하는 걸 이름이 한텐 잘 참아주고 있더라구요. 외면적인건 아무래도 할 일이 많아지니 더 부지런 해 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9. 내가 참 결혼을 잘했다 생각될 때는 언제 였어요?

아플때입니다. 사랑꾼 민이삭 권찰은 제가 아플 때 성심성의껏 잘 보살펴줘요. 잔소리 안해도 알아서 척척 집안일도 잘해주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주고 자상하게 신경써줍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해요.

10. 권찰님을 비롯하여 남편분과 이름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의 아주 풍성한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심이 느껴져요. 그 감사함을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표현 해 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매일이 행복합니다. 때론 제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면 어찌지 라는 생각도 할 만큼 진심으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어린 철부지였고, 어른들의 걱정거리였던 제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참 뭉클하면서도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보살핌과 사랑,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랑도 받은 사랑이 나눠 줄 줄 안다는 말처럼, 많이 사랑받고 풍성히 받은 사랑 교회에, 또 새로 생겨날 많은 축복의 열매들에게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11. 권찰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질문에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 주신 진정한 아버지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요.

12.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 중 그 어느 가정보다도 으뜸 되는 가정되길 축복하며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사랑 해 주세요.

자랑을 하자면... 이름이 재우고 식탁에 앉아서 과일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새벽 2시까지 깊은 대화를 나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대화 할 수 있는 가정인데 감사한 것 같아요. 함께 밥 먹을 때 아빠가 기도하면 이름이가 저보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다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인 것 같아요.

13. 민 이 삭 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민: 민첩하고 더 부지런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해....이름이아빠!

이: 이렇게 살다가는 이름이 열매 과일값 총당 못하자나 열매아빠!

삭: 삭~ 오빠가 늘 얘기하듯 주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걱정 없이 살아 봅시다! 이름이, 열매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 해 줄게요. 여보~~~사랑해~^^

14. 신앙의 이력이 궁금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교회로는 3~4살쯤부터 순복음당진교회를 다녔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교회에 출석 중이구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3 동계수련회 때였어요.

15.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학생 때였는데 공부와 거리가 멀었어요. 노는 것이 낙이었던 시절 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기 시작했고 말, 행동 등등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6.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님은 국어 선생님이셨고, 아버님은 주말에, 어머니는 상주하시면서 안흥교회 전도사 사역을 30년 정도 하셨었어요. 5년 전에 아버님께서 목회 안수 받으시고 태안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상하시고 저를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어머니는 매주 국도 댐비에 꿇여서 직접 보내주시는 위대한 엄마이시구요. 반찬도 매주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죠! ㅎㅎ

17. 권찰님의 인생에서 주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그리웠던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늘 터닝포인트를 맞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도 감사한 일들 이었더라구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을 들자면 이룸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떨어진 날부터 밥도 안 먹고,, 머리가 다쳤나 걱정되서 대학병원 응급실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자식을 통해서 배운다던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의 보살핌 없인 하루도 살 수가 없음울요.

18.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시는데 다시스로 간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경험을 들려주세요.

대학교 진학 할 때 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마도, 전도사님도 '소현아 신성대로 감동이 온다' 말씀하셨는데 매몰차게 뿌리쳤죠. 전 서울로 간다 했었어요. 다 떨어지고.. 결국 신성대를 갔는데 그게 저를 낮추는 첫 단추였어요. 참 교만 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신성대에서 3년, 한서대에서 1년 동안 집에서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4년 이었어요. 2013년도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엄마가 천국에 가셨거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섭리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19. 교회를 섬기며 사역의 비전이 반드시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요.

민이삭 권찰과는 가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진 직업과 달란트로 교회 일에 더 비중을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 가을 심방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각오가 궁금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란 제목으로 영혼의 만족함, 즐거운 삶, 도우심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 저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내년엔 제가 설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도구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칭찬하는 법 시라!

김소현 권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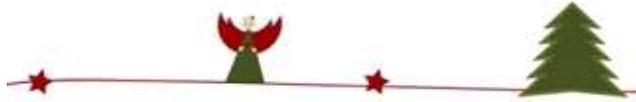
요즘 우리 교회에 배불뚝이 성도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잉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몇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만삭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바로 김소현 권찰님입니다. 유독 눈에 띄는 이유는 말 안해도 다들 아시죠?

얼마 전에 만삭의 몸으로 울동단 헌신예배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모

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예쁘던지요~ 말 하나도 은혜롭고 예쁘게 행동 하나도 은혜롭고 예쁘게 하니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열정의 학생과 청년의 때를 지나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등직히 지켜온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는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남편 민이삭 권찰님과 아들 이룸이 또 이제 막 태어난 열매까지~~ 김소현 권찰님의 가정에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분 권찰님 건강하시고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두 아들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러나 주님!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 했습니다.

눈을 뜨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악한 것에 걸려들었구나~

느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았으며
놀리듯 조롱하며 감히 나를 가지고 놓았습니다.

감히!! 정말 감히!!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지만 금방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는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 모습인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예수님이 좋은걸 어떻합니까’ 를

목청껏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세력은 이제야

짜장 잡았던 내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 나갔습니다.

후우~~~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벌써 주님을 만난 지 25년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좌우 돌아보지 않으며 주님
한분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길이라 자부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날마다 밤마다 괴롭히던 악한 것들은
이제 나라는 상관없다며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견고한 신앙 때문에 넘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간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흐트러지고 구멍 난 이 모양새를 보고 반가이 찾아왔나 봅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악한 것에 대해서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 상하고_

무엇보다 주님께 면목 없어 한참동안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쉽리 신앙을 가지고서 펼쳐진 상황에 좌절하지 않으며 견뎌 보겠습니다.

흐트러진 모양새를 바로 잡고 구멍 난 곳은 잘 박음질하여

그 악한 것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경으로 윗타리를 쌓겠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면

강하신 주님의 두 팔로 저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해의 수고와 노력이 추수의 때가 이르러 튼실한 결실을 맺고 계시지요?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셨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열매를 맺었기에 감사의 고백들을 풍성히 해 주셨습니다. 소망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어떤 감사들인지 어떤 열매들이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하며 또 나누어 보는 시간되시길 원합니다.

김학순 권찰

죄에서 나를 구원 하신 주님! 주희의 동생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시라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주변을 기쁘게 하며 유익을 구하는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김정애 집사

큰딸 장막의 열매, 막내 직장의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물질의 축복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김순미 권사

작은 아들 정석이에게 합당한 직장 허락하심이 제게 큰 열매입니다.

이종희 집사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김정임 집사

남편 구원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능성을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더 힘있게 기도합니다.

이영선 집사

아직 학교 발표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연주와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경아 권찰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영미 집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러지고 있는 가정예배를 통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꼭! 열매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명희 집사

경환이의 직장 해결 해 주심 감사, 하연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심 감사합니다. 가족의 영성이 총만함과 아들 부부에게 믿음의 은사 주심을 믿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김정화 집사

올 한해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에 협력해 주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하고~ 성이가 어려움은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청자 집사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파의 주님께서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송미정 집사

아직 열매 맺었다는 고백은 못하지만....아직 시간이 있기에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김미진 집사

나씨 3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족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아직 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혈은 아픈 것에 겁이 많아 본인은 수술로 출산할거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수술 할 시간도 없이 아이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이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제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네요!!

박기숙 집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성의 회복으로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8 DJFGC 김장 문화제

2019년 김장때 만나오

우 리 들 의 김 장 비 법



맛있는 김장김치 만들기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맛있는 김장김치로
정을 나누면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 임마누엘 학생회

▶ 단합대회

모임장소: 태안 신두리

준비물: 믿음, 소망, 사랑



조개구이 최고쥬



고생했다
고쓰리



추수감사절

2018 당진순복음교회

영광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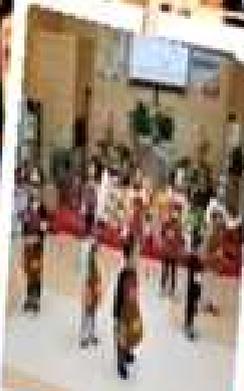
(시107편1절)

Give

Thanks



2018 추수감사절·찬양대회



꿈디를 기원쥬?



우리교회 꿈나무



엄마파워유



내년에도



고욱



기대허유

*** 결심과 실천에 대한 자아성찰 ***

전수현 권찰 (2번) -

1. 100% 2. 70% 3. 50% 4. 25%

*** 이달의 결심과 실천 ***

조은혜 성도

일주일동안 세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이상 기도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유머

▣ 여비서들의 실수담

상황1: 초보 때의 일입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와 어른을 찾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물었더니 “댁으려 가셨어”라고 하기에, “대구려 가셨다는데요!”라고 했답니다. 사무실 뒤집어졌습니다.

상황2: 저는 사장님께서 “성양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왜 찾지도 않던 성00 언니를 찾으시나”하고 ○○팀에 전화해서 사장님께서 찾으신다고 전달했죠. 성00 언니, 사장님 방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야! 성냥 달래”

상황3: 원장님이 부원장님 오면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원장님께 “원장님께서 전화 달라합니다”하니깐, 부원장님 갑자기 전화기 코드까지 뽑으셔서 전화기를 통째로 주시면서 “전화기를 왜 달라시지?”라고 하시잖아요. 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황4: 초보시절, 손님 세 분 오셨는데, “여기 커피 한 잔 줘요”라고 하기에... 정말 한잔 달랑 갖다 드렸습니다.

감사 릴레이

-박선진 집사-

송미숙 권철님 덕분에 나를 뒤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바쁘다고 몸이 힘들다고 예배 생활을 잘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에 혹을 주셨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목사님과 그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생각하며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수술 잘하고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찌보면 내겐 고난이었던 육체에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것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과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성도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증보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맛난 음식보다 더 달콤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입었으니 저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홀하였던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충성되이 감당하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려하니 엄청 쑥스럽습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 : 정효선 집사님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날씨로 어깨를 움츠리게 되는 12월입니다. 우리 다니엘 유초등부에서는 이런 추운 날씨도 있었는지 밖에서 뛰어 놀고 배우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11월 감사라는 주제로 3부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찬양 대회가 있다 보니 찬양 연습이 삼부 순서로 등장했습니다. 첫 주에는 학년으로 나갈지 아니면 성별로 나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년이 아닌 여자 친구들과 남자친구들로 나누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연습에 들어갔는데 여자 친구들은 처음 듣는 곡이라 첫날 연습 할 때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에 반에 남자친구들은 들어본 아이들이 좀 있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둘째 주 역시 찬양 연습 첫 번 연습할 때 보다는 확실히 많이들 연습 해 와서 첫 주보다 훨씬 수월 해 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에 열심 있는 모습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찬양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도 해 보았습니다. 셋째주 토요일에는 사과 밭 체험을 다녀왔는데요. 직접 사과도 따보며 체험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급하게 진행 되어 못간 친구들도 있어 많이 아쉽지만 다녀온 아이들에겐 참 즐겁고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두구두구~~~ 대망의 찬양대회 당일입니다. 삼부 순서로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리허설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찬양대회가 시작되었고 어린 친구들부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어수선 해 질것을 대비해 그렇게 진행 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각 구역, 개인 참가자까지 모두 찬양이 끝나고 가슴 떨리며 기대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교육부 시상에서 우리 여자 친구들이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짹짹 참 잘했어요~~~

11월의 마지막 주는 성탄 카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산타 모자, 트리, 원형리스 모양으로 카드를 꾸미고 카드 안쪽은 예쁜 트리를 팝업창으로 만들며 즐겁게 만들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또 다른 긍정적인 말을, 부정의 말은 또 다른 부정의 말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남은 1달 동안 우리 모두 긍정의 말로 또 다른 긍정의 말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한달도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긍정의 말과 응원으로 축복의 말을~ 그리고 많은 기도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경 퍼즐

① 1		2				② 4				5
		③		3					④ 6	
⑤				⑥						
			7				⑦ 8			
	⑧	9			⑨ 10					
		⑩		11		12				
									13	
						⑪				
			⑫ 14						⑬	
		⑭								
			⑮ 15	15						

가로

- ① 열 재앙 중, 8번 째 재앙.
- ② <요일4:16> 하나님은 ○○이시라.
- ③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지정해 주신 성.

- ④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 ○○범절.
- 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 준 사람. 기생 ○○.
- ⑥ <시23:4> ~주의 지팡이와 ○○○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⑦ 천지를 창조하신 분.
- ⑧ 홍수 후,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증표’.
- ⑨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 ⑩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도시.
- ⑪ 믿음의 조상.
- ⑫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
- ⑬ 에서에게 팔죽을 팔아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
- ⑭ 노아의 홍수 이후 급격하게 줄어 든 것. 비슷한 말로 ‘연세’.
- ⑮ 하나님의 편지로 66권으로 되어있다.

세로

-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고기.
- 2. 하나님과의 대화.
- 3.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 4.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
- 5. 하나님의 두 성품 중 사랑의 하나님과 ○○의 하나님.
- 6.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 7. <창2:6> ○○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8. 최초의 여자.
- 9. 성막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 10.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
- 11. 사과, 복숭아, 수박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
- 13. 노아의 세 아들. (순서대로 쓰시오.)
- 14.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패배한 성.
- 15.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함“을 뜻하는 단어.

			천	지	창	조			
			국		세				
	선	악	과		기	드	온		
편	지		지	혜			세	상	죄
자		옥				우	상		사
		만			방	주			함
	가	나	안						
살	인		식		주	의	어	린	이
	과		일	요	일				삭
	아			단					
바	벨	답		강	아	지		드	
로						팡		보	
왕						이	스	라	엘

<성경 인물 소개>

모세(Mo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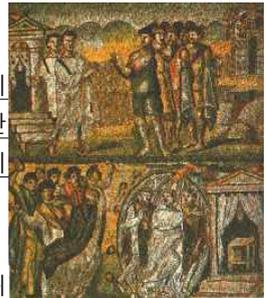
뜻 : 물에서 건져 냄

통속적인 설명으로는 "건져낸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들"이라는 뜻일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가이다. (애굽을 나온 것은 1290년 경). 모세는 레위 족속 아르람과 요벳 사이에서 낳았으며 미리암과 아론의 동생이다. 당시 애굽의 박해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웠는데 마침 애굽의 왕녀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양육 받으며 애굽의 학술에 통달하였다(행 7:22).

하루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출2:11-15)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그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기르숨 엘저에셀 두 아들을 얻고 40년을 지냈다(출2:23, 18:3-4). 그가 80세 되던 해 어느 날 호렙산(일명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로부터 민족 해방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 히브리인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출12:51).

그림 : 모세에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산타 마리아 마지오레 성당의 이 모 자이크는 초대 기독교의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로서 구약을 주제로 한 44장면의 모자이크 중 29장면이 보존되어 있다. 5세기 전반. 높이 190cm.



광야생활 40년에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놀랄만한 위대한 영도력으로 민족을 일깨워 주었고 인도했다. 그 동안에 홍해의 이적도 일어나고 바위를 쳐서 물도 나게 하였으며 모든 병고를 여호와와 권능을 빌어 해결해 주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이 율법이 원칙적으로 생활의 원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어 거기에 매장하였다. (신3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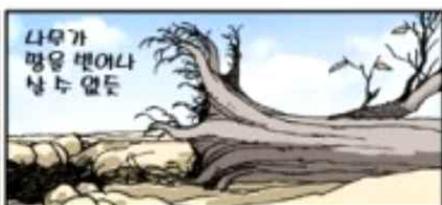
* 모세는 성경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정치가요, 종교가였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 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숨은그림 : 대접(그릇), 핫도그, 요요, 물고기, 낚시바늘]

* 나를 떠나서는... - essay.170 -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미세 먼지

요즘 TV를 틀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 먼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변에서 떠들어 대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사람을 한번쯤은 움츠리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고 공기 좋은 지구였을 것이다.

미세 먼지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이나 짐승의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먼지이다.

예전에는 봄철에 다가오는 황사가 불청객이었지만 요즘은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오는 미세먼지들이 불청객이다. 차량의 매연을 통해 공장의 매연을 통해 이런 미세먼지들이 더욱 많이 생성되고 있다. 공업국가인 우리 나가는 피해 갈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만 바뀐다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몹시 아쉬운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 사례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은 미흡한 처지이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 중국은 많은 기업들에 정화시설 등 설비관련 문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실행되지 않을 시에는 폐쇄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해 더는 공기의 질이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비단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만을 보고 좋았더라 하신 것만은 아닐 것이다. 좋았더라 예는 죄가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포함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루며 지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아름다운 이야기

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기에 전업주부였던 어머니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내 밑으로는 여동생만 2명....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도 못 먹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다.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다. 우리 3자매를 키우는데 어쩌면 당연한데 우리는 늘 그런 어머니가 미웠다. 바보같이 아프면 좀 쉬면서 일했으면 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나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결혼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큰 병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미웠다. 하필 이 좋은 날, 암에 왜 걸리는 거지..... 멍청하다고 소리쳤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항상 웃기만 하셨다.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도 모르건만..... 항상 웃으셨다.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문제는 수술비와 입원비였다. 이제 가족인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다. 말하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남편은 돈을 구해 본다고 했다. 참 미련해 보이기만 하는 남편도 참 착한 사람이다. 따뜻한 마음에 반해, 나는 결혼하였고 그는 언제나 나를 편하게 해 주었다. 다음날 어머니를 입원시키러 친정에 갔지만, 우리 미련한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자식에게 말도 없이..... 혼자 그렇게 곤히 자는 것처럼 누워 있던 건지.....

당황해서 119에 신고도 하고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도 했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정말 참 많이 울었고 원망도 했던 것 같다. 아마 그렇게 가셨다면 어머니는 죽어서도 혼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3일이 지난 오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다시 눈을 뜨셨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다.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아가야, 우니?”

“.....”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주셨고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아이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힘을 내야 해”

솔직히 속으로 좀 부끄럽기도 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었고 시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싫었다.

“아가야, 환자보다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힘도 좀 내라”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모습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셨을까? 시어머니는 내게 흰 봉투를 꺼내 주었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아 많은 돈을 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나는 놀란 눈으로 흰 봉투와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남편에게 반했던 그 웃음은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다.

“그리고 이걸 너와 나 둘이서만 아는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이걸 비밀로 하자. 그러니 우리 둘만 알아.”

시어머니는 내 손에 흰 봉투를 쥐여 주면서 괜찮다고 해 주셨다. 그리고 가만히 나를 안아주자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기대어 영영 울고 있었다.

나의 엄마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엄마의 마지막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일찍 도착하셨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보라고 엄마 수술하게 해 주신 어머니야.”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더니 지갑에서 우리 결혼 사진을 꺼내 엄마 손에 쥐여 주셨다.

“사부인 저예요. 이쁜 딸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예쁜 미소를 가지고 계셨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가세요. 이제는 제 딸 아이입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지킬게요.”

시어머니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처럼 엄마의 의식이 없는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다. 너무 놀라 의사 선생님을 불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우리를 위해 수십 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하셨던 우리 엄마..... 우리의 투정도 애교도 모두 넘기며 웃었던 엄마의 마지막 미소가 번졌다.

아..... 의식이 없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엄마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참 아름다운 미소를 지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미소를 딸들이 닮았다고 좋아하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들도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여행을 해도, 외식을 해도 항상 부르셨다. 내 동생도 어느덧 아나가 차서 결혼을 한다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또 다시 돈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듯 돈을 뿌리치고 나왔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엄마 생각도 났지만 세상에 무슨 이런.....

버스정류장에 도착 하였을 때 즈음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다는 문자가 왔다. 그 길로 다시 어머니께 달려갔다. 이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나를 포근히 안아주셨다. 그리고 같이 우셨다.

“아가야, 너 기억 안나니? 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네 엄마와 약속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거 안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어찌 보니?”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울었던 것 같다. 모르겠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끝없이 눈물이 났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도움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힘들 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그런 시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결혼 한 동생들의 아이들이 시어머니의 미소를 꼭 닮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랄까? 우리 엄마도 그 미소를 지녔었는데....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로 주나보다. 물론 내 아들도 그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난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깨고 남편에게 비밀을 털어 놓았다.

병원비....

그리고 사랑....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다.

우리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 참 많았다. 난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생활비를 쪼개어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며느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저희 자식도 어머니를 닮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내겠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퍼온글--

말(言)이 주는 힘

시기는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귀국 즉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오라고 ~

보고 싶다며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동료가 있어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팔과 눈을 하나씩 잃었어요. 그와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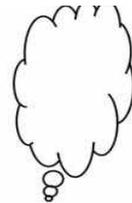
“글쎸다 아들이.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어쩌면 몇 달도.... 그러나 평생 그럴순 없지 않겠니? 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에 그런 장애인을 언제까지나 함께 데리고 살순 없을 거야~ **괴로운 집 이란다.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거야~**”

어머니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아들은 무겁게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이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으니 빨리 시신을 인수해 가라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통화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나러 간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팔과 눈을 하나씩 잃은 바로 그 동료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의힘

-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시사용어 Briefing

블록체인 Block Chain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블록’으로 만들어 기존 장부에 연결하는 디지털 공공거래장부 기술을 말한다. 거래 정보 덩어리인 블록이 생기고 모든 참여자가 거래 명세를 승인하면 각각의 장부에 분산, 저장된 블록이 사슬처럼 이어진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통화) 대부분이 적용되는 기술로서 코인 투기와 버블 붕괴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터 버블 Filter Bubble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인터넷 IT업체들이 이른바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개별 사용자들은 점점 더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의 온라인 시민단체인 므부온의 이사장인 엘리프레이저가 쓴 책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플레이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개인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특정하게 만든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필터버블이 우리의 생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랜섬웨어 Ransomware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사진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비트코인이나 금품을 요구한다.

언택트 마케팅 Untact Marketing

사람과의 접촉, 즉 콘택트를 배제한 무인서비스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겼다. 금융권 뿐만 아니라 드럭스토어, 패스트푸드, 버거킹,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한 메뉴 주문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평신도헌신예배 / 12월 2일 오후 6시
2. 목사님 목회계획 / 12월 3일~6일
3. 하반기 제직세미나 / 12월 13일 오후 7시
4. 권사회헌신예배 / 12월 16일 오후 7:30
5. 성탄축하제 / 12월 24일 오후 6시
6. 성탄절예배 / 12월 25일 오전 11시
7. 교회시상식 / 12월 30일 오전 11시
8. 교회학교 졸업예배 / 12월 30일 오후 6시
9. 장학금 수여식 / 12월 30일 오후 7시
10.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오후 11:30

◎ 공지사항

1. 12월 생활실천표어 : 아름다운 결산을 하자

◎ 이달의 교우소식

1. 출타 / 이영주사모 - 12월 11일, 전국사모연합회 월례회
한승권목사 - 12월 17일, 총서지방회 월례회
12월 18일, 교단 실행위원회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 : 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 : 010-3066-0544

문서위원회

-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